

## 이제, '진도의 눈물' 닦아주자

### ■ 세월호 인명구조·수습 앞장선 주민들 생활고 심각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누구보다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앞장섰던 진도 주민들의 생활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진도는 물론 인근 해역에서의 어업이 불가능하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으며, 농수축산물은 판로가 막혔다. 특별재난구역 선포 이후 정부에서는 조도 주민만을 대상으로 생계자금 지원에 나섰으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그것도 단 한 차례 지급됐을 뿐이다.  
진도군이 받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중 군민에게 지급된 금액이 3분의1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밝혀져 논란이다.  
생계가 막막해진 진도군민들은 24일 오후 '세월호 여객선 참사로 특별재난구역 선포'에 따른 가정 범군민대책위원회의를 갖고 마지막 실종자까지 찾는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정부에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4월21일 특별재난구역 선포 후 사고수습비 40억원, 생활안정자금 및 구조 참여 선박 실비 지급 39억7000만원, 일반 피해자 장례비 8억5000만원 등 모두 88억2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생활안정자금 및 구조 참여 선박 실비 가운데 진도 주민들에게 쓰인 금액은 생활안정자금 1158세대 9억8800만원, 소형 어선 유류대 및 인건비 1억2000만원 등으로 10억원 남짓이다. 사고 수습에 참여한 신안·여수 등 채낚이 어선, 닻자랑 어선 등에 29억1800만원이 지급된 것이다.  
정부가 여기에 지원한 금액도 가구당 85만3400원에 불과,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데다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어민들에게 지원되는 특별영여자금을 받으려 해도 대출 이자(연 3%)가 부담이 돼 업무를 내지 못하고 있다.

### 인근해역 어업 불가능하고 농축산물 판로도 막혀 여름철 관광객 발길 '뚝' 특별재난구역 지원은 '절끔' 군민들 정부에 실질대책 촉구

진도군 관계자는 "외지에서 온 선박이 100t 이상으로, 유류대와 인건비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7000만원 정도가 남아 30억원을 추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지역 수산물에 대한 판매량도 폭 떨어졌다. 꽃게를 주로 위판하는 서망항에도 꽃게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수색 작업으로 조업에 제약을 받다 보니 꽃게 등의 물량이 크게 줄어 울해 들어 위판액이 지난해보다 15억원 가량 줄었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세월호 기름 유출로 피해를 입은 미역과 톳 등 해조류와 전복 피해액은 100억원도 넘는 것

로 추정되지만 아직 정확한 조사도 안 되고 있다.  
여름철 관광특수도 사라져 여행사에 약은 대부분 취소됐고, 대표 관광지에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다.  
진도의 대표적인 관광지 운림산방에는 평소 주말 기준 하루 500~600명이 방문했지만, 참사 이후에는 방문객이 20~30%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군민대책위 김남중(44) 위원은 "진도군민들은 세월호의 마지막까지 실종자 수색을 최대한 돕겠다"며 "하지만 지역 경제 기반부터 무너지고 군민들이 생계에 허덕이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말뿐인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도면 이장단과 시민사회단체, 도의 일 등이 참여하는 범군민대책위는 이날 오후 진도읍 칠마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건의문과 요구문을 범정부대책본부 등 정부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 문창극 총리후보 사퇴... '국정 표류' 장기화

### 14일만에... 朴, 국정운영 타격

친일사관 논란을 낳았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결국 자진 사퇴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 게 차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총리 지명 14일 만에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관련기사 4면>  
문 후보자는 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 드리고 싶었다"며 "그러나 제

가 총리 후보로 지명 받은 후 이 나라는 더욱 극심한 대립과 분열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며 사퇴 결심의 배경을 밝혔다.  
과거의 발언과 글로 인해 '친일 논란'에 휘말린 뒤 억울함을 호소했던 문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은 더 이상의 '버티기'가 박 대통령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안대희 전 후보자에 이어 총리 후보자 2명이 연쇄 낙마하는 현정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지면서 세월호 참사 후 국정을 수습하려던 박 대통령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정지민주연합 등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연이은 인사검증 실패에 따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어 정치적 파장도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청문회 문도 못열고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생각해 잠겨 있다. /연합뉴스

**광신대학교**  
사랑과 감사의 60년  
1954  
60th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 알립니다

## 제59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작품 발표회



### 28일(토) 오후 1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일보사와 (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 '제59회 호남예술제'가 뜨거운 성원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각 부문 최고상 수상자들과 호남예술제 출신 선배들을 초청, 작품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며 문화예술의 터전을 가꿔줄 미래의 스타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발표회 관람은 무료입니다.  
<관련기사 15·16·17면>

◇주최: 光州日報社, (사)아시아문화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 문화전당 내년 9월 전면 개관

### U대회 맞춰 7월 사전 개관 콘텐츠 못 채워 '효과' 의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이 내년 7월 프레(Pre) 개관을 거쳐 9월개 전면개관한다.  
그러나 애초 우려대로 문화전당 콘텐츠(공연·전시, 운영프로그램)를 전부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개관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을지 의문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추진단)은 24일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가 참석한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업무공유' 간담회에서 "2015년 7월 프레 개관을 거쳐 9월개 문화전당을 (본격)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국제U대회에 맞춰 7월개 부분 개관한 뒤 아시아문화장관회의 등 국제행사가 집중된 9월개 문을 열어 개관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개관 일정에 따르면 7월 프레 개관에서는 문화전당 5개원 가운데 하나인 민주평화기념관, 정보원 라이브러리

파크, 창조원, 어린이문화원 일부 프로그램은 선보이고, 9월개 문화전당의 나머지 공간을 개방한다.  
문제는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가 모두 채워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추진단이 문화전당 개관 이후 오는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채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자칫 개관 현장을 찾은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대목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문화전당이 개관할 때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는 충분한 상황이라서 우려할 바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추진단은 윤장현 당선자에게 문화전당 개관 관련 교통·숙박대책 협력, 작가 거주장작 공간 확보 등 현안에 대해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당선자는 "문화전당 개관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맞아들이는 전형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협력을 다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www.muancleanvalley.com

## 청정 환경으로 더욱수룩 더 시원한 라운딩!

# 무안클린밸리

무안이 아껴둔 청정계곡에 위치한 친환경 골프장 무안클린밸리에서 시원한 바람과 끝없이 펼쳐지는 무안 앞바다를 바라보며 시원한 라운딩을 즐기십시오!

그랜드 오픈기념  
그린피 할인행사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골프코스 소개  
• 풀린코스 : 1 ~ 9  
• 밸리코스 : 10 ~ 18

찾아 오시는 길

무안클린밸리

문의 061) 452-3100

신남 무안군 청계면 남면리 신77번지 클린밸리

• 시행사: (주)영산 • 사용자: 기안토건(주)